

제4물결 페미니즘을 넘어: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의 확산

이 순 주
울산대학교

이순주(2020), 「제4물결 페미니즘을 넘어: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의 확산」,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1(1), 89-113.

초 록 최근 20년간 아르헨티나에서는 페미니즘 이슈가 사회적 논쟁과 변화를 이끌고 있다. 여성폭력과 살해에 대한 반대, 낙태 합법화 등은 과거에도 존재했던 이슈이지만, 그 중요도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 #NiUnaMenos운동 이후 아르헨티나는 동수제가 도입되는 등 커다란 정치·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낙태 합법화에 대한 인식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 논문은 아르헨티나 페미니즘 이슈가 최근 핵심 정치 의제로 등장한 배경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이 활성화된 환경 속에서 활용된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의 운동방식과 연대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현재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운동의 확대를 살펴본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제4물결 페미니즘의 배경인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기적인 연계가 실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핵심어 자율적 페미니즘, 낙태 합법화, 전국여성의 만남, 해시태그, 연대

I. 들어가며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경제적 변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페미니즘의 이슈와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정치적으로는 과두제와 독재 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 시대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민주주의가 공고화하고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확산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여성 개인이나 집단의 관심과 행동전략들을 변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가 심화하면서 야기한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사회전반의 자원 재분배를 주장했다. 또한 사회운동은 다양한 집단의 정체성과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제적 맥락과 정치 기회 변화에 따라 때로는 자원 재분배, 혹은 정체성과 권리인정이 더 강하게 주장되었다. 이를 여성으로 적용하여 보면, 재분배에 대한 요구는 여성의 계급성이 반영되어 노동자와 빈곤 여성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보다 평등한 성별 권력분배가 요구되었다. 정체성과 권리인정에 대한 요구는 지금까지 소외되어왔던 아프리카계 라틴아메리카 여성, 원주민 여성, 레즈비언, 노동자 여성, 빈민 여성, 그리고 노조 여성이 각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1970년대 이후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은 사회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여성들은 정치·문화적 선두에서 젠더 권력의 차이에 관심을 두면서 사회정의와 더욱 포괄적인 시민권을 위해 투쟁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아르헨티나 여성운동과 페미니즘도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20년간 아르헨티나에서는 페미니즘 이슈가 사회적 논쟁과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구 페미니즘과 유사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참정권 획득에서부터 1970년대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 아이콘이었던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이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실패에 대한 저항으로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다시 페미니즘이 ‘재정치화’(다트리 2013, 160)하였다. 2015년부터 지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여성 살해(Femicidio)와 여성에 대한 폭력반대운동인 #NiUnaMenos운동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으

로 확산하였다. 이를 계기로 민주화 이후 제도화하고 탈정치화했던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을 재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Natalucci and Rey 2018; Nijenson 2017). 그리고 #NiUnaMenos운동은 마초중심문화를 가진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젠더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세계여성의날에 ‘8M’이라는 이름으로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여성파업이 확산하는 등 그 영향이 상당하다.

또 페미니즘은 아르헨티나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남녀동수제와 같은 정치 의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극렬하게 대립해 아르헨티나 정치권이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한 것이다(Osborn 2019).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근 핵심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여성 살해 반대나 낙태 합법화라는 의제는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페미니즘의 주요 이슈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이슈들을 남녀동수제 입법과 연결해 가부장적 정치사회 체제의 변화, 민주주의의 질적인 변화로 이끌어 낸 것이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변부에 머물렀던 페미니즘 이슈가 현 단계에서 핵심 정치 의제로 부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어떠한 전략과 운동방식이 페미니즘 이슈를 주요 정치적 의제로 드러나게 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확산하는 과정에는 인터넷을 바탕으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SNS가 활용되었다. 해시태그(#)로 대표되는 온라인 언어가 중요한 도구로 등장했으며, 다양한 상징의 색들이 등장하면서 메시지의 전달과 확장을 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운동방식을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위 ‘제4물결 페미니즘’의 맥락으로 본다면,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을 서구 페미니즘과 간략히 비교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제4물결 페미니즘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최근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운동의 양상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그 수단과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필자의 최근 ‘아르헨티나 동수민주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2019)’의 후속 연구에 해당한다. 아르헨티나에서 남녀동수제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을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확대임을 파악하고, 페미니즘의 영향이 어떠한 양상으로 확대해 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현재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부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II.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의 발전

1.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의 서구 페미니즘에 대한 시각

서구의 페미니즘은 주로 3단계로 ‘물결’¹⁾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시기와 주요 이슈들이 구분된다. 최근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페미니즘도 온라인으로 연결 행동이라는 방식을 통해 대중 운동을 일으키는 단계인 ‘제4물결’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되고 있다(김은주 2019).

제1물결은 19세기와 20세기 전반까지 시민권으로서 여성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대이다. 이 시기 페미니즘은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여성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2물결은 1960년대 등장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시기로 ‘모든 개인은 정치적’이라는 모토 아래 확장하였다. 가부장제의 뿌리에 대한 강력한 집단적 성찰이 시작되었고,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여성 해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의제는 가사노동과 가정폭력, 피임과 낙태에 대한 권리, 임금차별철폐 등이 핵심을 이루었다(조선정 2014, 51). 제3물결은 1990년대부터 나타난 변화로 제2물결이 보여준 한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1) ‘물결’이라는 표현은 리어(Martha Weinman Lear)가 1968년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March 10, 1968)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가 ‘두 번째 페미니스트 물결(The Second Feminist Wave)’이라는 기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페미니스트 운동 결집을 위해 처음 사용하면서 ‘물결’은 각 시기를 구분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운동방식을 강조했다. 제3물결에서는 제2물결이 중상층 백인 여성의 경험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고 보고, 제2물결이 정의한 ‘여성성’의 정의에 도전했다. 제3물결은 여성의 삶을 인종, 민족, 종교, 계급, 성별, 그리고 국적 등 다양한 요소가 교차(intersectional)하는 지점으로 보고, 그러한 요소들이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Drucker 2018). 스나이더(Snyder 2008, 175-176)는 1990년대 이후 페미니즘이 1980년대까지의 페미니즘과 전략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보았다. 첫째, 여성의 범주가 붕괴²⁾된 것에 대응하여 페미니즘의 교차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개인의 증언들에 토대를 둔다는 것이다. 둘째, 이론을 정당화하고 행동으로 연결 짓는 것을 넘어 다의성(multivocality)을 포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성별 전쟁의 분열에 대응하여 포괄적이고 단정적이지 않은 접근법을 통해 페미니스트를 정치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즉, 광범위한 논쟁지점들 내에서 비판적으로 작동하는 페미니즘의 거대담론을 거부하고, 포괄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페미니즘의 연대를 환영하는 역동적인 결속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서구 페미니즘에 관한 비서구 페미니즘의 비판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국제회의를 통해 주목받았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의 흐름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서구 페미니즘은 주변부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혹은 제3세계 페미니즘 등을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비판을 정리해보면, 첫째, 서구는 제3세계 여성들의 주요 문제가 성별 간 불평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 둘째, 여성의 지위를 분석할 때 가부장적 권력을 우선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 셋째, 인종이나 계급

2) 제2물결 동안 급진페미니즘에서 성적으로 억압받는 계급으로서 여성을 심도 있게 이론화함으로써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은 정치적 동의어처럼 사용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페미니즘의 주제가 ‘여성’이 되었다. 그러나 흑인, 레즈비언, 사회주의 여성들은 페미니즘에서 ‘여성’이 강력한 균질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여성 내에서도 백인, 앵글로 색슨 및 교육받은 여성의 현실과 다른 인종이나 계급 혹은 문화권에 속한 여성을 동질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급진적 페미니즘에서 쿠퍼 이론과 LGBT+ 운동을 함께 다루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에서 다루는 ‘여성’개념이 불안정해졌다.

혹은 국가구조 내 위치 등 다른 분석 범주들을 젠더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 넷째, 제1세계와 제3세계 그룹들 간의 연대가 성 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행동주의와 페미니스트 동원화가 정치 시스템을 통해 여성 권리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Bruno 2006).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이러한 페미니즘의 흐름에 대한 설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역사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가르가요(Gargallo 2007)는 <우리 아메리카의 페미니즘 (feminismo nuestro-americano)>에서 젠더 투쟁과 여성해방을 이해하려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특징과 역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 구체성들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식되는 자유의 준거에서 벗어나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페미니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르티네스(Pilar Rodríguez Martínez)는 ‘주변부 페미니즘(feminismos periféricos)’을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나 제3세계 페미니즘으로 확장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주변부 페미니즘에서는 성, 계급, 인종, 종족 등의 요소가 중요한 관계로 연결된다. 하지만 주변부 페미니즘은 다양한 유형의 차이가 나타나는 교차 투쟁에서 접합되어 페미니즘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주변부 페미니즘은 서구의 역사적 투쟁에서 나타난 참정권자 페미니즘이나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시기적으로 겹쳐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주변부로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페미니즘 투쟁전통은 계급, 종족, 토지 등의 역사와 더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부 페미니즘은 주류 페미니즘의 변화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받지 못하면서 가부장제, 계급, 종족, 피부색 등에 따른 차별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페미니즘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의 역사적 모델 안에서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의 역사를 조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2.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의 발전단계

학자마다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의 단계 구분은 조금씩 다르지만 베루스(Stephanie Rivera Berruz)는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을 5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20세기 이전의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이 페미니스트 작가들을 통해 나타났던 시기다. 이 작가들은 여성의 역할과 사회·문화적 변화의 필요성,³⁾ 토착민의 자율성과 과학에서의 여성권리,⁴⁾ 여성의 평등과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 관계,⁵⁾ 교육과 철학교육을 통한 여성의 도덕적·지적 해방,⁶⁾ 여성 교육 기회의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Berruz 2018).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대다수 여성이 문맹이었으며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다.

2단계는 1940년대까지로 여성의 정치 경제적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벌였던 시기다. 유럽과 미국에서 첫 번째 물결 시기로 분류되는 참정권⁷⁾ 투쟁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1929년 우루과이에서 처음으로 여성참정권을 획득했고, 아르헨티나는 1947년에 여성참정권을 갖게 되었다.

3단계는 1950년에서 1970년대까지로, 칠레의 페미니스트 학자 키르크우드(Julieta Kirkwood)가 침묵의 시대(los años del silencio)라고 평가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이후 정당 활동이나 대중운동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였지만, 이를 페미니스트 의제와 연결하지 못했던 시기였다(Kirkwood 1986). 침묵의 시대는 라틴아메리카 전체에서 군부정권이 장악하고 있던 시기이며 국가에 따라 1980년대까지도 연장되기도 한다. 한편, 같은 시기의 유럽과 미국에서는 두 번째 물결의 시기로 낙태권이 강력하게 요구되

3) Sor Juana Inés de la Cruz(1651-1695), 멕시코

4) Teresa Margarida da Silva e Orta(1711-1793), 브라질

5) Flora Tristán(1803-1844), 페루

6) Juana Manso(1819-1875), 아르헨티나

7)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성참정권을 갖게 된 연도는 다음과 같다. 에콰도르(1929), 우루과이(1932), 브라질(1934), 엘살바도르(1939), 파나마(1941), 도미니카공화국(1942), 과테말라(1946), 아르헨티나(1947), 베네수엘라(1947), 칠레(1949), 코스타리카(1949), 볼리비아(1952), 멕시코(1953), 콜롬비아(1954) 페루(1955), 온두라스(1955), 니카라과(1955), 파라과이(1961). http://womensuffrage.org/?page_id=109

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페미니즘적인 여성 권리 요구보다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더 컸던 시기이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어머니, 아내 등-이 더욱 부각되었다(이순주 2005).

4단계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라틴아메리카의 군부체제가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시기로, 라틴아메리카 전체에서 여성운동이 등장하고 페미니스트 슬로건이 급진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민주화 이후 각 국가에서 여성 정책전담기구가 생겨나거나 주요 페미니스트 NGO 활동가들이 정부 관료로 영입되는 등 페미니즘이 제도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역내 국제여성대회와 학술적 페미니즘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페미니스트 만남(Encuentro Feminista Latinoamericano y del Caribe, EFLAC)’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1981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2~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EFLAC⁸⁾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들의 페미니스트 학자와 NGO 등이 참여하여 각 국가들의 상황과 경험을 분석하고 공유하며 연대전략 등을 논의했다. EFLAC는 역내 페미니스트 활동의 연대와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Valdivieso y García 2005, 44-45).

제5단계 페미니즘은 21세기에 들어 나타나고 있는 페미니즘으로 가부장제, 인종주의, 식민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와 연계되어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사회 전역에서 페미니즘이 강력하게 성장하는 현상이 목도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제2물결에서 등장한 낙태에 대한 권리⁹⁾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8) 제15차 EFLAC는 2020년 11월 22일에서 25일까지 엘살바도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9)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합법적이고 안전한 무료 낙태권을 위한 전국캠페인(*la Campaña Nacional por el Derecho al Aborto Legal, Seguro y Gratuito*)이 시작되었고 2005년 5월 28일 국제여성보건행동의 날(*International Day of Action for Women's Health*)에 대중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페미니스트들은 임신의 자발적 중지를 합법화 하는 법안을 수차례 의회에 제출하였고, 2018년 의회에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결국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거부되었다. 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Alberto Fernández*, 2019-)은 낙태합법화를 선거공약의 하나로 제시했고, 행정부가 임신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aulon 2020).

3.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 발전의 특수성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물결’로 표현되는 페미니즘의 발전단계 구분은 주로 백인 여성의 경험에 바탕을 둔 서구 페미니즘의 분류이다. 이러한 일반화로는 라틴아메리카의 페미니즘 발전단계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초국가적인 여성운동이 전개되면서 가시화된 제1세계 여성들과 제3세계 여성들 간의 이해와 관심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참정권 획득을 위한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 운동은 서구와 유사한 시기에 전개되었고, 참정권도 비슷한 시기에 획득하였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은 지속 발전하기 보다 역사적·세대적 단절을 경험하였다. 중앙아메리카에서는 혁명과 반혁명이 대치하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브라질 등에서 잔혹한 군부독재를 경험하면서 페미니즘은 약화하였다(다트리 2013, 158). 이후 민주화와 사회적 화해 과정을 통해 인권 관련 의제들이 주목받으면서 페미니즘이 다시 부상하였다.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은 1970년대 말부터 다양화되었고 확대 여성운동이 등장하며 의회, 정당 뿐 아니라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부문과 연대하여 실질적인 요구들에 집중하였다. 확대 여성운동은 중단기적으로 확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정당, 학계, NGO 등과 연계하여 파급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원하는 공공정책을 이끌어 내려는데 목적을 가진다(García and Valdivieso 2005, 43).¹⁰⁾

UN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초국적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페미니즘이 제도화되었다. 이에 라틴아메리카의 페미니즘도 제도화하고 국제적 흐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1975년 멕시코시티를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코펜하겐, 나이로비, 그리고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대회와 ‘1975년 세계여성의 해’와 이후 ‘유엔 여성 10년(1975~1985)’ 등은 다양한 여성 이슈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정부 대표자, 여성 NGO, 여성 활동가 등이 연대할 기회를 제

10) 확대여성운동은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여성대회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 강화와 확산의 핵심전략으로 다시 공고화된다.

공했다.

특히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를 통해 채택된 ‘베이징 행동강령’은 이에 서명한 189개국 정부에서 여성 정책전담기구를 수립하고 성 평등과 성 주류화를 적용한 법, 정책, 프로그램, 개발계획 등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 정부에서 여성 정책전담기구가 신설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그룹은 여성 정책전담기구의 기술 관료가 되었고, 비정부기구는 전문적이고 비정치화되어 갔다. 제도권으로 편입된 페미니스트는 정부정책의 틀 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경향이 짙었고 상당히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페미니즘 NGO는 하층민 여성의 필요 충족에 대한 요청에 따라 정부나 후원자와 수혜자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통해 힘을 키우려는 여러 NGO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페미니즘 운동은 파편화되었다. NGO들은 전 지구적 활동의 틀 속에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입증하면서 점차 UN의 국제정책을 실행하고 고조력하는 하청업자가 되었다(Flaquet 2003;다트리 2013, 159 재인용). 결과적으로 페미니즘은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정치 운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Kauppert and Kerner 2016, 82).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러한 페미니즘 제도화에 반대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자율적 페미니즘’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결성된 ‘빵과 장미(Pan y Rosas)’이다. 아르헨티나의 ‘빵과 장미’는 2001년 시작된 극심했던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3년 중반에 결성되었다. 경제 위기로 도산기업이 늘어나자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고용주 없는 노동자들’¹¹⁾과 같은 운동이 급속

11) 당시 ‘근로자에 의한 공장회복 전국운동(El Movimiento Nacional Fábricas Recuperadas por los Trabajadores)’은 공장을 점거한 후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자주적으로 공장을 관리하는 운동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위기에 처한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새로운 투쟁모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이러한 형태로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30여개에 달했다(Waisberg 2002).

도로 확산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브루크만(Brukman)이라는 의류회사였는데, 마지막까지 투쟁했던 56명의 근로자 중 46명이 여성 근로자였다. 이후 브루크만은 아르헨티나의 노동운동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 페미니즘의 표상으로 등장하였다. ‘빵과 장미’는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도입이후 거리에서의 페미니즘 투쟁이 학계와 제도권, 그리고 국제기구의 영향력 아래로 편입되면서 크게 퇴색하였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들을 ‘브루크만 여성 노동자들의 딸들’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 가부장제에 대한 투쟁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이 포함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들은 제도화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특정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책, 포스터, 영화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판매를 통한 수익으로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오고 있다(D’Atri 2007). 이처럼 ‘자율적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의제를 독자적으로 선점하고 주도해 나가기 위해 정부나 정당 그리고 가부장적이라고 간주되는 모든 단체로부터의 후원을 받거나 함께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흐름으로 나타났다(다트리 2013, 159; García and Valdivieso 2005). 이러한 과정은 또한 아르헨티나의 페미니즘을 대중화하고 탈 엘리트화 하였다. 특히 외채위기 이후 라틴아메리카 각국에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으로 인한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빈곤의 여성화나 사회계급 및 종족 차이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자율적 페미니즘의 확산은 제도화된 페미니즘이 정부의 정책과 유엔의 보편화된 정책을 시행하는데 집중하고 이러한 다양한 불평등의 근원에 관한 관심이 적은 데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것이었다.

4. 제4물결 페미니즘?

앞서 베루스의 시기구분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제5단계에 해당하고, 서구 페미니즘 혹은 세계적으로 제4물결 페미니즘 시기는 21세기 이후의 페미니즘에 해당된다. 현 단계의 페미니즘을 제4물결 페미니즘이라고 할지 제5단계 페미니즘이라고 할지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환경을 기반

으로 하는 소통수단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나타난 변화들은 이전의 페미니즘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디지털 환경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확산하는 것을 넘어 조직과 동원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시민 간의 소통과 연대가 수평적·다면적으로 확대하면서 시민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와 사회운동 양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장우영 외, 2009). 이러한 시민의 위상과 역할변화는 전 세계 페미니즘 확산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탈 엘리트화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또, 네그리와 하트는 최근 온라인 기반 사회운동에서 나타나는 저항 행동주의(protest activism)의 자발적 주체를 ‘다중(Multitud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다중이라는 개념은 하나로 통일되거나 단일성, 혹은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매우 다양한 내적 차이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민중, 인민, 그리고 계급적 관점에서 노동자와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장우영 외 2009, 7 재인용). 여기서 페미니스트 다중은 다시 특이성과 다양성을 생산하는 주체이며, 측량화 혹은 계량화를 통해 교환하거나 대체 가능한 요소가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고유성과 독특성을 가진다(윤지영 2019, 10). 페미니스트 다중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방식을 통해 사적 공간을 가시화하고 개인의 경험을 정치화한다. 이를 통해 정치가 공적인 공간의 것이라는 관점을 지속해서 변경한다.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이의 경험을 탐색하고 소통하며, 서로 다른 젠더 이슈들에 대해 공유하면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The personal is political)’이 된다.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공유되는 개인의 사생활은 개인성을 지속시키는 상품이 됨과 동시에 ‘개인적인 가상공간’은 개별화된 세력화의 공간¹²⁾이 된다(Rottenberd 2014; Rogan and Budgeon 2018, 19 재인용). 결과적

12) 예를 들면, 파워 블로거나 일인방송국 등 개인의 관심사나 생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구독자를 확대하게 되면, 이는 온라인에서 상품화가 되는 동시에 해당 플랫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으로 신자유주의시대의 페미니즘은 개인적인 가상공간과 같은 모든 요소들을 스스로 외부와 연결하여 공공재로 변모하였다. 소셜미디어 환경의 확대는 개별화된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연대감을 만들어 내는 최적의 여건을 제공했다.

특히 가상세계의 확장은 소통 비용을 축소하고 속도를 높이며 개인과 그룹 간의 의견교환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물리적 거리를 축소한다(Bernardo and Sergio 2016, 10). 이러한 소통방식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을 희미하게 만들고,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의 구분도 약화시킨다. 즉 개인의 고통과 이에 대한 고발이 주는 메시지가 집단의 메시지로 승화되기도 한다. 기존의 시민사회가 사회 전체의 비전을 가진 정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시민사회는 더욱 다양화된 권리의 옹호에 더 집중한다. 두 시민사회는 보다 바람직한 사회의 비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반응적 행동과 감정을 움직이는 맥락이 오프라인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시각과 요구를 가진 페미니즘이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과 적절한 연계를 만들어내는 전략과 방법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정치사회적 변화로 추동해 내기에는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아르헨티나의 현 단계 페미니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확보하고 실제 정치사회변화를 추동해 가고 있는 주요 사례라 할 수 있다.

III. 아르헨티나 페미니즘 운동의 수단과 전략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페미니즘 이슈는 곧 보편적 정치사회이슈가 되었다. 페미니즘의 주요 이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반대, 남녀동수제, 낙태 합법화가 그 중심에 있다. 21세기 아르헨티나의 페미니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 보완과 연계가 실제 정치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남녀동수제 입법의

실현과 낙태법 합법화의 가능성 증대는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페미니즘 영향력의 확대를 나타내는 중요한 근거로 볼 수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페미니즘 운동의 도구와 전략은 다분히 제4물결 페미니즘 발전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오프라인 운동과 연계하고 있다.

1. 색상과 해시태그(#)

민주화 과정에서 실종된 자녀와 가족을 찾기 위한 시위를 주도했던 ‘오월광장의 어머니들(할머니들)’이 자녀와 손자·손녀들을 의미하는 흰색 기저귀로 만든 흰 스카프가 민주화와 여성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최근 색상과 스카프가 다시 페미니즘의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2015년 6월 3일 #NiUnaMenos(더 이상 한명이라도 안 돼)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금지에 대한 국가의 조치를 요구하는 첫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 시위는 임신한 어린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여 매장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하루에도 수백 건 이상씩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2016년 10월에 발생한 루시아 페레스(Lucía Pérez)라는 여성에 대한 폭행 및 살해사건 이후 시위는 더욱 강력한 정치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2016년 10월 19일 대규모 여성 파업이 아르헨티나에서 실시되었고, 여성 살해 반대운동은 남녀동수제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¹³⁾ 2017년에는 폴란드와 아르헨티나에서 국제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낙태권을 옹호하는 3월 8일 여성 파업으로 연결되었다. 3월 8일을 의미하는 8M 캠페인이 대규모로 확산되었고, 전 세계에서 50개국 이상에서 200개 도시가 참여하였다. 여성폭력과 살해에 반대하는 #NiUnaMenos와 보라색 물결은 역내 국가들 -우루과이,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파라과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으로도 확산하였다.

13) 자세한 내용은 (이순주 2019)를 참조.

#NiUnaMenos 슬로건과 함께 사용된 보라색¹⁴⁾ 스카프는 아르헨티나 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를 대폭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페미니즘과 동떨어졌다고 여겨왔던 많은 여성들과 페미니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의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정치적 대표를 포함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요구가 페미니스트 슬로건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갔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페미니스트 여성이 대중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사회 내에서 남녀평등의 개념과 투쟁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수년간 해 왔던 요구를 더 잘 드러내고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NiUnaMenos의 여성 살해 반대 이슈가 #MujeresALaPolítica의 정치에서 남녀평등과 남녀동수제 이슈와 함께 나타났고, 여기에 ‘합법적이고 안전한 그리고 무료 낙태(Campaña Nacional por el Derecho al Aborto Legal Seguro y Gratuito)’에 대한 입법 요구가 더해지면서 낙태 합법화를 의미하는 초록색 스카프가 사용되었다.¹⁵⁾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의 요구가 세 가지로 연결되는 논리는 이렇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살해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힘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의회와 법원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비율로 권한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남녀동수제가 요구되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낙태 합법화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무료로 낙태 시술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 ECLAC(유엔 라틴 아메리카 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매년 50만 건 이상의 불법 낙태가 이루어진다(Telesur 2018). 불법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은 치명적인 결과를 무릅쓰게 된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문제를 가부장제, 신자유주의, 여성의

14) 보라색이 페미니즘의 상징이 된 것은 1911년 미국 뉴욕의 한 섬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6명의 여공이 사망했는데, 이 공장에서 발생했던 연기가 보라색이었다. 이를 기리고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라색을 사용했고, 이것이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다(Arbat 2018).

15) <http://www.abortolegal.com.ar/category/actividades/>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여성의 삶에 관여되는 다양한 시스템과 가치가 복합되는 문제로 인식한다. 아르헨티나 사회는 보수적인 가톨릭 종교의 가치관과 가부장적 전통을 가진 사회이며,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시스템이 복합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는 사회이다. 여기에 여성은 폭력과 살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불법 낙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열악한 낙태시술을 받게 되는데 이는 결국 사회계급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가진 페미니스트들의 해시태그와 색상스카프의 활용은 시민 사회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정치인들에게도 낙태 합법화에 대한 요구를 가시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비록 낙태 합법화 법률제정시도가 실패하였어도 사회 전체에서 논의되면서 전통적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잠식했다.

이 외에도 오렌지색상과 빨강색상이 등장하였다. 낙태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에는 가톨릭교회가 미친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요구하는 상징색으로 오렌지색이 등장하였다.¹⁶⁾ 빨강색은 새로운 입양법 도입을 주장하는 색상으로 사용되었다.

#ParidadYa, #50-50, #UnayUno #Planeta5050는 남녀동수제를 추진을 위해 확산되었으며, #NiUnaMenos, #MiPrimerAsalto, #VivasNosQueremos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 반대를 상징하는 해시태그 들이다. 2016년 5월에는 #Rompamoseltechodecristal(유리천정을깨자)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했다. 이는 #NiUnaMenos를 시작한 몇몇 단체들이 젠더 불평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권력 공간에서 여성 대표성 부족, 임금격차, 돌봄 정책의 부재, 직장과 가정

16)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가톨릭의 영향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낙태합법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다. 낙태반대론자들은 하늘색 스카프를 사용한다. 이들은 하늘색 스카프에 '우리는 두 생명을 구합니다(Salvamos 'Las 2 Vidas')'라는 로고를 새겨두고 낙태반대를 주장한다. 낙태반대운동도 상당하다. 특히 종교단체의 반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하늘 혹은 하늘색을 의미하는 'Celestre' 당(Partido Celestre)을 설립했다. 이들은 정당명칭과 같이 하늘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하고 인권으로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 주요 설립목적이다(Clarín.com 2018).

에서의 이중 노동 부담 등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만들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에비타 박물관 오디오리움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공공정책연구기관, 아르헨티나 국제사면위원회, 대학교수, 언론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페미니즘의 전통적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형태와 분야- 커뮤니티 케이션, 네트워크, 예술, 문학, 스포츠 등-에서 새로운 방식을 더해 가고 있다 (Fernández Irusta 2016).

2. 영역과 방식의 확장

아르헨티나에서 페미니스트 운동은 예술과 미디어, 그리고 스포츠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가톨릭 전통이 강하게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혁명적 변화로까지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도전하고 여성의 문제를 입법부의 핵심의제로, 혹은 사회문화적 논쟁주제로 만들고 있으며 대규모 낙태 합법화 지지 운동과도 연계되고 있다. ‘무상, 안전, 합법 낙태권을 위한 전국 캠페인(Campaña Nacional por el Derecho al Aborto Legal Seguro y Gratuito)’이 대표적 단체인데 2018년 낙태법제정에 실패하자 2019년 이 단체의 14주년 기념일에 다시 법안을 제출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페미니스트 탱고의 밤’에서도 여성들이 초록 손수건이나 스카프를 매고 춤을 추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의 전통댄스로 유명한 탱고 분야에서도 페미니즘운동이 일고 있다(Lodoño 2019). 탱고는 짝 끼는 옷에 높은 하이힐을 신고, 남성이 리드하는 방식대로 매우 불편하고 힘든 자세를 견뎌야 한다. 탱고 페미니스트 운동은 국립탱고아카데미의 릴리아나 프리오(Liliana Furió)와 탱고 댄서 빅토리아 베이트리아(Victoria Beytia)가 탱고 무대에서 가부장적 문화를 배제하기 위한 새로운 탱고 규칙을 만들어내고 실험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탱고무대에서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다시 무대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만들어 냈다.

NP(Nosotras Proponemos)는 예술 페미니스트 단체로 2017년에 예술세계의 여성차별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Christensen 2019). 이 단

체는 홈페이지에서 총 5장 37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항에 서명한 2,742명의 전세계 회원으로 출범하였다. 핵심회원은 100여명이며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의 활동 방향은 관심 유도하기와 재교육하기이며, 페미니스트 행진 참여 등이다. 2018년 3월 8일 여성 파업과 행진에 참여했으며 2019년 여성 파업에 참여하면서 진행한 세 가지 프로젝트는 해당 행사의 핵심이 되었다. 그 중 하나는 ‘깃발 걸기(banderazo)’로, 수백 개의 깃발을 여성운동의 색인 초록색으로 칠하고 도시전역의 발코니에 내 거는 캠페인을 벌였다. 3월 7일 밤은 ‘프로젝터 쏘기(proyectorazo)’라는 이름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페미니스트 그룹과 공동작업으로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문장들을 전시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페미니스트 메시지를 전하는 캔버스로 사용하였다. ‘밧줄 펼치기(trenzazo)’는 세계 여성의 날 행진에서 20미터의 초록색 대형 밧줄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페미니스트의 연대와 확장을 상징화하였다.

또 ‘페미니즘 짜기(Tejiendo Feminismos)’라는 단체는 니트를 짜서 자신들의 주장을 가시화하고자 하는 단체로 지난 10여 년 동안 고의로 살해당한 2,630명의 성인과 청소년 여성 희생자의 이름을 니트에 새기는 활동을 한다. 이들은 여성 살해 반대를 홍보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의 상징색인 초록색 네모모양으로 니트를 짜서 희생자의 이름을 실로 새긴 다음 이를 이어 붙여서 커다란 장막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 합법화를 동시에 지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페미니즘 짜기’는 이들은 10월에 아르헨티나 라플라타에서 개최된 제34차 ‘전국여성의 만남(ENM: Encuentro Nacional de las Mujeres, 이하 ENM)’에 전시하였다(Hellerstein).

이와 같이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은 전통문화에서 현대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 평등의 개념을 제고하고 있다.

3. 전국적 연대 플랫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오랫동안 언론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던 여성 이슈가 미디어에서 주기적으로 최고 중요도로 다루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례가 없

을 정도이다. 신문과 웹사이트에서는 젠더 폭력, 성폭력, 여성 살해, 경제적 차별 등에 관한 기사가 계속 게재되고 있으며, 노동조합들도 젠더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여성 음악가들은 음악콩쿠르에서 30%의 할당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 전면에서 페미니스트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사회의 변화는 정치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여성의 연대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 NGO, 국제기구, 국제 NGO 등 다양한 집단과 개인이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ENM은 아르헨티나 모든 분야의 여성들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매우 강력한 오프라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198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매년 다른 도시에서 ENM을 개최한다. 이는 여성의 연대를 강화하는 세계 유일의 전국 규모 여성 대회이다. 특히 ENM은 자율적 페미니즘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ENM은 매년 아르헨티나 연방 전체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다원적, 민주적, 자치적, 수평적, 자족적, 자체소집, 다민족, 페미니스트, 대중, 다양성(anual, federal, plural, democrático, autónomo, horizontal, autosostenido, autoconvocado, plurinacional, feminista, popular, diverso)을 바탕으로 한다. 2019년에는 라 플라타시에서 10월 12~14일까지 개최되었는데 총 87개의 세션이 열렸고 약 20만 명 정도가 참가하였다. ENM은 보통 3일간 개최되며, 참가자가 경제적 조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전 신청자에게 무료숙박과 무료식사가 제공된다. 각 세션은 아르헨티나의 여성 관련 세부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션에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 세션들에서는 조용히 듣기보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의 결론은 투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좌장은 진행을 돕는 코디네이터로 역할하며, 서기를 정하여 논의된 내용을 기록하고 세션 종료 시에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본부에 제출한다. 본부는 이를 취합하여 발간한다(김민정 외 2019). 2019년 ENM에서는 빈곤의 여성화, 청소년 부모(엄마), 일상에서의 마치스트 폭력, 불법 낙태 시술로 인한

사망, 여성 살해, 성전환자 살해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이 주제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문제들이 의제로 부각된 이유는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Mauricio Macri, 2015~2019)의 시장중심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¹⁷⁾ ENM은 온라인 페미니즘을 오프라인과 연계하여 페미니즘 내 다양한 요구를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플랫폼으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나오며

최근 아르헨티나 사회의 변화 한 가운데 페미니즘이 있다. 페미니즘의 이슈는 더 이상 주변부의 이슈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정치사회의 핵심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현 단계 아르헨티나의 페미니즘의 활성화는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의 발전 속에서 페미니즘의 제도화와 신자유주의 토대가 실질적인 페미니즘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제 변화로 이끌어 내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인식은 국제기구나 정부, 그리고 제도권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는 자율적 페미니즘을 활성화 하였고, 세계 유일의 전국규모 여성대회인 ENM도 이러한 정신에 토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페미니즘은 #NiUnaMenos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NiUnaMenos 이후 페미니즘이 아르헨티나 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아르헨티나에서 본격적으로 선거에서 남녀동수제를 도입하였으며, 입법부를 포함하여 행정부와 사법부에서도 동수제를 지향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교황의 모국이며, 가톨릭문화의 전통이 뿌리 깊은 아르헨티나에서 낙태 합법화의 실현을 앞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온라인 소통이 활성화된 기술적 환경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경험과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공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

17) <http://encuentrodemujeres.com.ar/>

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페미니즘운동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양한 도구들의 활용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다. 해시태그는 짧은 단어들로 페미니즘의 요구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각인시키고 확산시켰으며, 색상스카프는 높은 활용도와 상징성이 빠른 메시지의 확산을 도울 수 있었다.

여기에 아르헨티나 페미니즘 운동의 역동성과 차별성의 기반은 전국적인 연대를 형성하는 플랫폼인 ENM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개최되는 ENM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직업, 거주지, 인종 등 모든 경계를 벗어난 광범위한 소통과 연대의 장이다. 이는 페미니즘의 요구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도록 실제 사례를 수집하고, 논거를 구축하며 세부행동전략을 구축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오프라인 플랫폼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와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확산은 성별, 연령, 국적, 종족을 가리지 않고 파급효과를 지니면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유연하지만 강력한 투쟁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ENM과 함께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다양한 페미니즘 단체들의 활동 등이 어우러져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참고문헌

- 김민정 외(2019),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추진기구 연구」, 한국여성정의.
- 김은주(2019), 「제4물결로써 온라인-페미니즘 : 동시대 페미니즘의 정치와 기술」, 한국여성철학, 31, pp. 1-32.
- 다트리, 안드레아(2013), 「라틴아메리카 페미니즘 투쟁의 10년(2000-2010): 21세기 벽두에 거둔 성과와 과제」, 2012년 라틴아메리카-정치안정과 경제회복,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pp. 57-193.
- 윤지영(2019), 「페미니즘 지각변동: 새로운 사유의 터, 페미니즘 대립각들」, 문화와 사회, Vol. 27, No. 1, pp. 7-75.
- 이순주(2005), 「남미 민주화 과정과 여성의 역할: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Vol. 9, No. 4, pp. 189-210.

- _____(2019), 「아르헨티나 동수민주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Vol. 30, No. 3, pp. 199-229.
- 장우영 외(2009), *디지털 융합시대 온라인 사회운동 양식의 변화와 의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조선정(2014), 「포스트 페미니즘과 그 불만: 영미권 페미니즘 담론에 나타난 세대론과 역사쓰기」, *한국여성학*, Vol. 30, No. 4, pp. 47-76.
- “34th Encuentro Nacional de Mujeres | La Plata 2019,” <http://encuentrode mujeres.com.ar/>
- “Campana Nacional por el Derecho al Aborto Legal Seguro y Gratuito” <http://www.abortolegal.com.ar/category/actividades/>
- Arbat, Sandra(2018), “Por qué el color violeta es el verdadero símbolo de la marcha feminista del Día de la Mujer,” <https://www.lavanguardia.com/de-moda/feminismo/20180306/441315715416/dia-mujer-8-marzo-huelga-feminista-color-violeta.html>
- Bruno, Javier Perira(2006), “Third World Critiques of Western Feminist Theory in Post-development Era,” *The Univ. of Texas at Austin*.
- Christensen, DeAnna(2019), “The Women of Nosotras Proponemos: Art Feminism in Argentina,” <https://plas.princeton.edu/news-events/news/women-nosotras-proponemos-art-feminism-argentina>
- Clarín.com(2018), “Por las dos vidas: Se lanzó el partido Celeste, la primera fuerza en contra del aborto,” https://www.clarin.com/politica/lanzo-partido-celeste-primera-fuerza-aborto_0_S1yRU-QPQ.html
- D’Atri, Andrea(2007), “Chap.2, Re-politicization of the Women’s Movement and Feminism in Argentina: The Experience of Pan y Rosas” in Alpizar Durán, Lydia, Payne, Noël D., & Russo, Anahi(Eds), *Building Feminist Movements and Organizations*, Global perspectives, London/New York: Zed Books.
- Drucker, Sally Ann(2018), “Betty Friedan: The Three Waves of Feminism” <http://www.ohiohumanities.org/betty-friedan-the-three-waves-of-feminism/>
- Fernández Irusta, Diana(2016), “El feminismo se reinventa, entre la Red y la calle,” <https://www.lanacion.com.ar/opinion/el-feminismo-se-reinventa->

- entre-la-red-y-la-calle-nid1902777
- Flaquet, Jules(2003), “La ONU ¿Aliada de las mujeres? Un análisis feminista del sistema de las organizaciones internacionales,” en *Multitudes*, No1, Paris.
- Gargallo, Francesca.(2007), “Feminismo Nuestro Americano,” *Revista Venezolana de estudios de la mujer*(28), Caracas, pp. 17-34.
- Hellerstein, Erica(none), “Some say Argentina is in the midst of a feminist revolution. Activists are gaining ground in the fight to legalize abortion,” <https://www.thelily.com/some-say-argentina-is-in-the-midst-of-a-feminist-revolution-activists-are-gaining-ground-in-the-fight-to-legalize-abortion/>
http://womensuffrage.org/?page_id=109
- Kauppert, Phillip; Kerner, Ina(2016), “Un feminismo político para un futuro mejor,” *Nueva Sociedad*, No. 265, septiembre-octubre, pp. 77-88
- Kirkwood, Julieta(1986), *Ser política en Chile: Las feministas y los partidos*, Santiago de Chile: FLASCO.
- Londoño, Ernesto(2019), “‘A Caricature of the Patriarchy’: Argentine Feminists Remake Tango,” <https://www.nytimes.com/2019/10/05/world/americas/argentina-tango-gender.html>
- Martínez, Pilar Rodríguez(2006), *Feminismos periféricos: discutiendo las categorías sexo, clase y raza (y etnicidad)*, Alhuila.
- Natalucci, Ana and Julieta Rey(2018), “¿Una nueva oleada feminista? Agendas de género, repertorios de acción y colectivos de mujeres (Argentina, 2015-2018),” *Revista de Estudios Políticos y Estratégicos*, Vol. 6, No. 2, pp. 14-34.
- Nijensohn, Malena(2017), “Por un feminismo radical y plural: Repensando las coordenadas teóricas y políticas de un nuevo feminismo desde una lectura cruzada de Judith Butler, Ernesto Laclau y Chantal Mouffe,” *Cadernos pagu* (54), e185411.
- Osborn, Catherine(2019), “Feminism Is Uniting Argentina’s Left and Right,” Foreign Policy. com, <https://foreignpolicy.com/2019/10/23/argentina-elections-left-and-right-empower-women-address-economic-problems/>
- Paulon, Esteban(2020), “Ahora sí el aborto será ley,” <https://www.infobae.>

- com/opinion/2020/03/16/ahora-si-el-aborto-sera-ley/
- Rivera-Berruz, Stephanie(2018), “Latin American Feminism,” i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ited by Edward N. Zalta, Winter edition. Stanford, CA: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8/entries/feminism-latin-america/>
- Rogan, Frances and Shelley Budgeon(2018), “The Personal is Political: Assessing Feminist Fundamentals in the Digital Age,” *Social Science*, No. 7, p. 132, www.mdpi.com/journal/socsci
- Rottenberg, Catherine(2014), The rise of neoliberal feminism, *Cultural Studies*, No. 283, pp. 418–37.
- Snyder, R. Claire(2008), “What Is Third-Wave Feminism? A New Directions Essay,” *Signs*, Vol. 34, No. 1, pp. 175-196.
- Sorj, Bernardo and Sergio Fausto(2016), *Activismo político en tiempos de internet*, São Paulo: Edições Plataforma Democrática.
- Telesur(2018), “5 Significant Women-led Social Movements in Latin America in 2018,” <https://www.telesurenglish.net/news/5-Significant-Women-Social-Movements-in-Latin-America--in-2018-20190308-0020.html>
- Tomé, Danila Suárez(2019-2-28), “El mar proceloso del feminismo: ¿En qué ola estamos?,” <https://economiafeminita.com/en-que-ola-estamos/>
- Valdivieso, Magdalena and Carmen Teresa García(2005), “Una aproximación al Movimiento de Mujeres en América Latina. De los grupos de autoconciencia a las redes nacionales y trasnacionales,” *OSAL, Observatorio Social de América Latina* (año VI no. 18 sep-dic 2005), CLACSO: Buenos Aires.
- Waisberg, Pablo(2002), “ARGENTINA: Workers Take Factories into Their Own Hand,” <https://corpwatch.org/article/argentina-workers-take-factories-their-own-hands>

이 순 주

울산대학교
letillee@ulsan.ac.kr

논문투고일: 2020년 3월 22일

심사완료일: 2020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 2020년 4월 21일

Beyond Fourth Wave Feminism: The Spread of Argentine Feminism

Soon-Joo Lee

University of Ulsan

Lee, Soon-Joo (2020), “Beyond Fourth Wave Feminism: The Spread of Argentine Feminism”,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1(1), 89-113

Abstract During the last 20 years, feminist issues have led to social debate and change in Argentina. Opposition to violence and murder against women and the legalization of abortion are issues that have existed in the past. However, the importance of these issues in the current Argentine society is not comparable to that of the past. Since #NiUnaMenos movement, Argentina has experienced significant socio-political chang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gender parity laws, and increased awareness of the legalization of abort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argentine feminist issues emerging as a key political agenda. It explores the feminist movements and strategies used in an internet-based, online environment and examine the expansion of the current Argentine feminist movement. In Argentina, the organic link between online movements and offline movements is achieving real resul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background of the fourth-wave feminism.

Key words Autonomous Feminism, Legalization of Abortion, Hashtags, Feminist Solidarity, Encuentro Nacional de las Mujeres